

# KOTRA 「코로나19 비상대책반」 일일 동향 보고

- 8.3(월), 코로나19 비상대책반 -

## 서남아지역본부

### □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				
인도 (뉴델리)	□ 현황 (총 1,803,695명 확진, 164,825명 신규확진, 38,135명 사망)				
	연번	지역	누적확진자	신규확진자	사망
	1	안다만&니코바르제도	734	263	8
	2	안드라프라데시	158764	28207	1474
	3	아루나찰프라데시	1698	214	3
	4	아삼	42904	4497	105
	5	비하르	57024	8547	329
	6	찬디가르	1117	101	19
	7	차티스가르	9531	770	58
	8	다드라나가르하벨리	1184	120	2
	9	델리	137677	3274	4004
	10	고아	6530	826	53
	11	구자라트	63562	3277	2486
	12	하리아나	36519	2265	433
	13	히마찰프라데시	2703	197	14
	14	잠무&카슈미르	21416	1547	396
	15	자르칸드	12523	2356	118
	16	카르나타카	134819	16187	2496
	17	케랄라	25911	3608	82
	18	라다크	1466	88	7
	19	마드야프라데시	33535	2567	886
	20	마하라슈트라	441228	29430	15576
	21	마니푸르	2831	326	7
	22	미조람	482	74	0
	23	메갈라야	874	71	5
	24	나갈랜드	1935	369	5
	25	오디샤	34913	4535	197
	26	푸두체리	3806	508	52
	27	편잡	17853	2397	423
	28	라자스탄	43804	3659	703
	29	시킴	658	48	1
	30	타밀나두	257613	17635	4132
	31	텔랑가나	66677	5960	540
	32	트리푸라	5374	668	27
	33	우타라칸드	7593	528	86
	34	우타르프라데시	92921	11882	1730
	35	웨스트벵갈	75516	7824	1678
	-	총계	1803695	164825	38135
*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3일 오전 8시 기준					
*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-10위에 포함되며,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					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인도 내무부 장관, 주 총리, 주지사 등 정치권 감염 확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2일(일)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</li> <li>- 이와 더불어 BS 예디유라과 카르나타카州 총리, 반와릴랄 타밀 나두州 주지사 등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정치권 감염 확산세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33k9qi8">https://bit.ly/33k9qi8</a> 08.03</p> <p>○ 인도정부, 15일(일) 국가 디지털 건강 계획(NDHM) 발표 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차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헬스ID 부여, 건강기록 및 의료시설 정보 디지털화 등을 통해 총체적인 디지털 건강 생태계 형성을 도모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NDHM 도입 발표 예정</li> <li>- 해당 계획은 헬스ID, 개인 건강기록, 의사 및 의료시설 정보 디지털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추후 전자약국 및 원격 진료 서비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he Times of India <a href="https://bit.ly/3a2q1bP">https://bit.ly/3a2q1bP</a> 08.03</p> <p>○ 아삼州정부, 봉쇄조치 완화 3단계 관련 지침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일(일) 오후 7시부터 14일(금) 오후 7시까지 기간 동안 역내 쇼핑 몰과 체육관 등 운동 시설은 평일에 한해 특정 구역에서 운영 가능하며, 월요일과 화요일의 경우 구역間 이동은 사전 허가 없이 가능</li> <li>- 레스토랑 및 기타 숙박업은 정부와 해당 지역의 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 재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imesnow <a href="https://bit.ly/2PiDbYD">https://bit.ly/2PiDbYD</a> 08.03</p> <p>○ 푸네州정부, 특정지역 봉쇄조치 연장과 더불어 완화 지침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주정부는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해 오는 31일(월)까지 봉쇄조치를 연장하였으며, 해당 지역은 특정 시간(오전 8시~오후 12시, 오후 5시~6시)에 한해서만 생필품 공급 가능</li> </ul>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봉쇄조치 완화 3단계에 따라 상점 및 교육기관의 사무실 운영 재개,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택시·개인차량 및 오토릭샤 허용 등 봉쇄조치 부분적 완화</li> <li>* 택시 및 개인 사륜차: 승객 3인 이하 탑승, 오토릭샤: 승객 2인 이하 탑승</li> <li>- 단 65세 이상 노인 및 10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한 이동은 엄격히 금지되며,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 강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India.com <a href="https://bit.ly/3fpCQxA">https://bit.ly/3fpCQxA</a> 08.01</p>

## □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웨이, 오는 6일(목) 초저가 스마트폰 ‘아너(Honor)’ 발표 예정</li> <li>- 금주 발표 예정인 저가형 스마트폰 ‘아너 9A’와 ‘아너9S’는 화웨이가 인도에서 출시한 첫 실용모델로, 두 제품 모두 구글 대신 자사 어플리케이션 갤러리 탑재</li> <li>- ‘아너 9S’의 경우 판매가 약 10만 원(6,499루피)이며, ‘아너9A’는 약 16만 원(9,999루피)으로 낮은 가격대 형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Gadgets <a href="https://bit.ly/3hUhgDg">https://bit.ly/3hUhgDg</a> 07.3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샤오미, 금주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 ‘레드미(Redmi)9’ 출시 예정</li> <li>- 오는 4일(화) 샤오미는 최신 보급형 스마트폰인 ‘레드미9 프라임’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, 6일(목)부터 이틀 간 ‘프라임 데이’ 프로모션 진행 예정</li> <li>- 제품 관련 세부정보는 발표된 바 없으나,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스페인에서 발표된 ‘레드미9’ 모델의 리브랜드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Gadgets <a href="https://bit.ly/3k7HgwU">https://bit.ly/3k7HgwU</a> 07.30</p>

## □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더플랜지, 영어회화 어플리케이션 ‘오딩가 잉글리시’ 힌디어 버전 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3일) 업계에 따르면, ICT-문화융합센터 입주기업인 더플랜지가 지난 1일(토) 자사 저학년 대상 AI 영어회화 어플리케이션인 ‘오딩가 잉글리시’의 힌디어 버전 출시</li> <li>- 동사는 교육시설 폐쇄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, 인도 모바일 시장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 출시될 다국어 버전의 첫 번째로 해당 버전을 출시하였으며, 이를 통해 인도 시장에 K-에듀 전파 목표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Etnews <a href="https://bit.ly/31c4Dga">https://bit.ly/31c4Dga</a> 08.03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삼성전자,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승 기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난 2일(일) 관련 업계에 따르면,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6%로, 1분기 16%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2위 기록</li> <li>*1위: 샤오미(29%)</li> <li>-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28%로 2위를 기록했으며, 1위인 중국의 원플러스와 점유율 차이는 1%p 미만</li> <li>-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점유율 상승은 인도 내부의 다양한 공급망 형성, 저가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판매 증대 등에 따른 결과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Business World <a href="https://bit.ly/39SopRJ">https://bit.ly/39SopRJ</a> 08.03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아차, ‘셀토스(Seltos)’ 시장 진출 1년만에 판매량 2위 기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19년 8월 출시된 ‘셀토스’의 지난 7월 판매량은 총 8천 270대로, 현대차 ‘크레타(Creta)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</li> <li>*현대차(크레타): 1만1천549대</li> <li>- 오는 7일(금) 공개 예정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 ‘쏘넷(Sonet)’ 출시 이후 기아차의 시장 내 입지 확대 예상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Rushlane <a href="https://bit.ly/39T1Wnm">https://bit.ly/39T1Wnm</a> 08.02</p>

국가 (무역관)	내용
파키스탄 (카라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, 현지 회사에 초과전력 판매</li> <li>- 30일(목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최대 민간 전력회사인 K-일렉트릭(K-Electric)에 초과전력 판매 착수</li> <li>- K-일렉트릭은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,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거래를 통해 현지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Mettisglobal <a href="https://bit.ly/2Dw2gwe">https://bit.ly/2Dw2gwe</a> 07.30</p>

## □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뭄바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구, 장난감, 스포츠 용품 수입에 비관세 장벽 부과</li> <li>- 인도 정부는 가구, 완구, 스포츠 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, 이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조치</li> <li>- 정부는 인도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더 높은 관세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, 비관세 장벽으로 방향을 변경</li> <li>- 추가로 수입 제한이 고려되는 산업의 수는 인도가 제조 이점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려는 산업 20여개 부문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Economic Times (8.3)</p>
인도 (벵갈루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월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(UPI) 거래 14.9억 건 기록</li> <li>- 7월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(UPI) 거래 실적은 지난 6월 대비 11% 성장하여 14.9억 건을 기록. 이는 인도에서 해당 디지털 결제 방식을 도입한 이래 최고 거래 건수임. 인도는 2023년까지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22%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해당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12.4조 달러에 이를 전망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Business Standard, 8.3.</p>

□ 기타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p>○ 인도정부, 정규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 채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인도정부는 지난 30일(목) 중등교육 제2외국어 권장 과목에 한국어를 신규 편입한 교육 정책 발표</li> <li>- 반면 인도정부는 '92년 이후 28년 만에 개정된 동 정책의 기존 권장 과목에서 중국어를 제외하였으며, 교육체계 세분화 및 제2외국어 과목 다양화 목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Zeenes <a href="https://bit.ly/2Pjiz2f">https://bit.ly/2Pjiz2f</a> 08.01</p>

/끝/